

방진회 · 품관소 조찬 간담회 개최

상호 협조로 품질향상 및 국방품질 보증제도 발전 도모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국방품질관리소(이하 품관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9일 『방산물자 품질향상 방안』을 주제로 방산업체 대표·임원 및 품관소·국방부 등 정부측 관계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조선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창설 20주년을 맞이한 품관소와 방산업체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품질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일성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산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품관소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우리의 방위산업은 주요 무기체계의 생산이 종료되고 아직까지 후속사업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시설의 유향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방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위산업의 추진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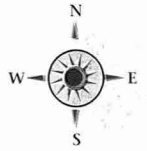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부품의 국산화”라고 지적하면서, “품관소와 방산업체는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노력하여 방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치운 품관소장은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방산장비의 『품질』은 군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품관소는 전투력 생산의 주체로서 그 임무가 실로 막중하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방산업체와 품관소는 방산품의 품질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항상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합심하여, 군수품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방산업체에서 제시한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 품보활동 업체위임 확대방안” 등 10가지 업계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품질보증활동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 달라는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품관소에서는 현재 이들 업체의 경우는 품질시스템 평가를 생략하고 있으며, 품질저하 위험성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품보활동 위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상방안에



대한 방산업체의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년말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시 개발 및 양산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품관소도 작년말 소프트웨어팀을 창설하여 활동중에 있고 소프트웨어를 장비의 주요한 구성품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가보상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산화개발이 완료되어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된 품

목을 조립업체에서 우선 구매 보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올해 계약분부터는 의무적으로 구매 사용토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단위소요량 유효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어 조치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군 전투력 생산"의 주체인 방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품관소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방산물자의 품질향상 및 국방품질보증제도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1 인도네시아 공군에 7대 수출

국산화율 높아 타국 비행 가격경쟁력 월등



이며 수출물량이 1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계약에 힘입어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에 주력해 앞으로 10년간 10억달러 규모의 훈련기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1은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용 비행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88년 개발에 착수한 이래 11년의 개발기간과 10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공군에 납품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자체 개발한 항공기를 처음으로 수출한다. 항공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 7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수출하기로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들 항공기는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인도되며,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에 미국·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10여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는 처음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계약분만 6000만달러 상당에 이르며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벌이고

KT-1은 최대 비행시간 5시간에 경무장을 할 수 있어 전시에 공격기로도 쓸 수 있고, 동급기종 가운데 최초로 100% 컴퓨터 설계를 했으며, 설계자료를 비롯, 정비와 교육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해 훈련생들이 전자교범으로 쉽게 교육받을 수 있어 수출이 성사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짧은 역사와 취약한 산업기반이라는 약조건을 딛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를 처음으로 수출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10여개국에 불과한 항공기 수출국가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KT-1과 각국 유사훈련기 성능 비교

구 분	KT-1	PC-9	T-6A Texan II
제 작 국 (제 작 회 사)	대한민국 (국과연/한국항공)	스 위 스 (Pilatus社)	미 국 (Raytheon社)
엔 진 형 태	P&W PT6A-62 터보프롭	P&W PT6A-62 터보프롭	P&W PT6A-62 터보프롭
엔 진 출 력	950마력	950마력	1,100마력
최대순항속도	262KTS (485km/시)	260KTS (480km/시)	270KTS (500km/시)
실 속 속 도	70KTS (130km/시)	69KTS (127km/시)	74KTS (137km/시)
상 승 고 도	38,000FT (11,400m)	38,000FT (11,400m)	38,000FT (11,400m)
상 승 륜	3,200FPM (960m/분)	4,090FPM (1,227m/분)	3,100FPM (930m/분)
고고도기동능력	2.2G (20,000FT 상공)	2.4G (20,000FT 상공)	2.2G (20,000FT 상공)

특히 1948년 미국에서 무상 원조받은 L-4 연락기 10대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출발한 우리 항공산업이 50년 만에 자체 개발한 항공기를 수출하는 개가를 이뤄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수출이 '76년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처음 미국에 수출한 사건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세계 12위 수출국가이면서 연간 10억달러 이상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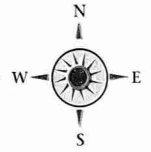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의미가 크다. KT-1은 독자 개발로 외국에 로열티를 내지 않는다. 국산화율(품목대비 80.9%, 가격기준 60.4%)이 높아 동급 기종인 PC-9, 브라질의 투카노, 미국의 T-6A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크게 높다. 또 훈련기 뿐 아니라 무장을 갖춘 변형기종인 통제기(XKO-1)와 지상훈련용 시뮬레이터 장비를 구축해 종합적인 무기체계를 원비, 패키지로 판매가 가능해 동급 항공기 가운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톰슨CSF, 삼성탈레스로 사명 변경

끝없는 도전정신과 창의력 계승 의미 담아 ...

천마 사업, 전투지휘 체계사업, 전술통신체계 사업 등 방산 전자 분야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톰슨CSF사가 지난 2월 26일 사명을 “삼성탈레스”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탈레스”의 이름을 사 용함으로써, 그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사명은 합작 투자사 인 프랑스 THOMSON-CSF의 그룹명 변경과 연계하여 바뀌게



THALES

되었다.

삼성탈레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지난 2004년간 축적한 정밀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삼성톰슨CSF”에 비해 simple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보다 고객 지향적인 친근한 이미지로 고객에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탈레스의 한 관계자는 “21세기는 정보통신 혁명을 통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방산업계에도 세계 유수의 방산전문 업체들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과 기업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고 경영 환경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Global 이미지에 부합하고 고객이 기억하기 쉬운 새로운 사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사명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2일 회사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박태진 대표이사는 “21세기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선진 경영 시스템 구축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명과 함께 신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자

고 역설한 바 있다.

삼성탈레스는 2000년 출범 첫해에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졌으며, 2005년 Global 종합 방산 시스템 전문업체로의 성장을 비전으로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탈레스사의 선진 방산 기술 분야와 삼성의 첨단 통신 제어 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산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및 제품의 공동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방산 전자 제품을 탈레스사의 세계적인 판매망을 통해 국산 방산 장비의 해외 수출 시장도 개척 중이다.

한편, 삼성탈레스사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 방산부문이 프랑스 탈레스사(구, THOMSON-CSF사)와 외자 유치를 통한 합작 회사인 삼성톰슨CSF로 출범한 바 있다.

또한 삼성탈레스는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해 가는 종합 방산업체로서 전자통신, 지휘통제, 정보전자, 유도무기 및 광전자분야 등의 개발,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S/W, Network Simulation, RF, ISDN 정합, 위성통신체계 및 단말장치 등의 핵심분야 연구개발로 국가 방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 초일류 종합 방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분야별 주요 제품

사업분야	주요제품
통신전자	전술통신체계, 전술교환기, 고속 무선 전송 장비
유도무기	천마 탐지 추적장치, 중거리 유도 무기 시스템
전투체계	구축함용 전투지휘체계
사격통제	전차 및 자주포용, 함정용 사격 통제 시스템
광전자	야간 투시경,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영상 장비